

## 2021년도 KLPGA 로컬룰 중 추가된 내용에 대한 공지

2019년에 대대적으로 새롭게 바뀐 골프규칙은 Clarifications의 형식을 통하여 3개월(매년 1월, 4월, 7월, 10월)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R&A와 USGA가 발표한 Clarifications에 따르면 한 개의 규칙(규칙16.1c(2))이 일부 보완되었고, 새로운 모델 로컬룰 D-7이 도입되었습니다.

규칙16.1c(2): “벙커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벙커 밖에서 후방선 구제(페널티 구제)를 받을 경우에 그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원래의 볼이 정지해 있던 그 벙커의 밖에 있어야만 한다”는 개정은 R&A와 USGA의 발표 즉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모델 로컬룰 D-7은 위원회에서 로컬룰로 채택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 로컬룰 D-7은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우연히 1) 플레이어를 맞힌 경우, 2) 그 스트로크를 하면서 플레이어가 사용한 클럽을 맞힌 경우, 3) 벌레나 곤충처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서 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되는 동물을 맞힌 경우에는 규칙11.1b의 예외2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팅그린에서 퍼트한 볼이 홀 근처에서 움직이던 지렁이를 우연히 맞힌 경우에, 모델 로컬룰 D-7이 도입되면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타수에 포함되고,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KLPGA 투어는 2021년도 로컬룰에 모델 로컬룰 D-7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여 적용합니다.**

**\*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에 대한 규칙11.1b 예외2의 적용을 제한 (모델 로컬룰 D-7)**

-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플레이어나 그 스트로크를 하면서 플레이어가 사용한 클럽 또는 벌레나 곤충 같은 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되는 동물을 우연히 맞힌 경우에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며,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규칙 11.1b 예외2의 수정 적용).

전 세계의 모든 투어에서 플레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행동 모니터링 강화, 페널티를 라운드 단위로 적용하기 보다는 토너먼트 단위로 적용, 벌금 액수의 대폭적 증액, 페널티의 시즌별 합산 적용 등의 여러 방안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LPGA 투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플레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분석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KLPGA 투어의 플레이 속도 지침을 규정한 로컬룰은 2021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플레이 속도 위반의 페널티에 대하여 계시어필위원회(The Timing Appeals Committee)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플레이 속도 위반의 페널티에 대한 이의 제기**

- 라운드 동안 배드 타임을 받은 플레이어는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계시어필위원회는 계시를 한 레프리와 선임 레프리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이후에는 플레이 속도 위반의 페널티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2021년 2월

KLPGA 경기위원회